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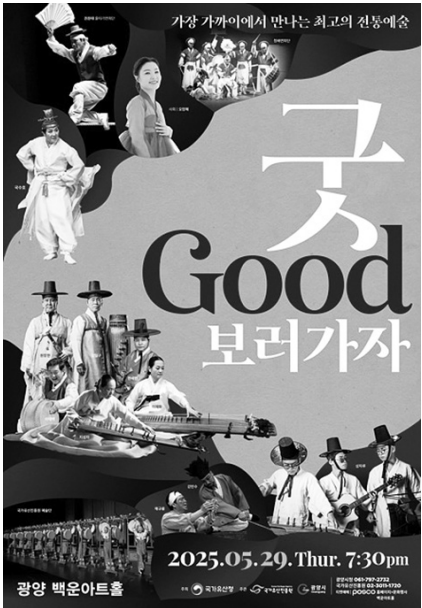
전통예술 진수 한자리에… ‘굿GOOD보러가자 광양’

29일, 포스코광양백운아트홀서 순회공연 8년 만에 개최지 선정
명인공연·줄타기 등 세대 아울러
1인당 2매 신청 가능, 전석 무료

전라남도 광양시가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지역 무형유산 전승자, 청년 예술인 등이 참여하는 전통예술의 진수를 이달 말 선보인다.

7일 광양시에 따르면 전통예술공연 ‘굿GOOD보러가자 광양’이 오는 29일 오후 7시30분부터 약 100분간 포스코광양백운아트홀에서 개최된다.

국가유산진흥원의 대표 브랜드 공연인 ‘굿GOOD보러가자’는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옴니버스 형식의 전통예술 지역 순회공연으로, 개최지가 매년 전국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선정된다.



광양시는 지난 2017년 이후 8년 만에 개최지로 다시 선정됐으며 국악인 오정해의 사회로 다양한 분야의 전통예술인들이 세대를 아우르는 수준 높은 무대를

시민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의 시작은 국가유산진흥원 예술단의 ‘오복춤(한순서류 오복)’으로 문을 열고 김일구(아쟁,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보유자), 원장현(대금, 국가무형유산 거문고산조 이수자), 지성자(가야금, 전라북도무형유산 가야금산조 보유자), 이재화(거문고, 국가무형유산 거문고산조 보유자), 한세현(피리, 국가무형유산 피리정악·대취타이수자), 이태백(장단, 국가무형유산 판소리(고법)·진도 씻김굿 이수자) 등 전통예술 명인들이 다수 출연한다.

이어 강민수·채규룡(국가무형유산 진도 다시래기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이 선보이는 단막극 ‘놀부막’이 관객과 함께하는 무대로 현장감을 더할 예정이다. 국수호(승무 이수자) 명인의 금무, 국악밴드 상자루의 퓨전 창작국악, 권원태(남사당놀이 이수자) 명인의 줄타기, 정배연희단

의 삼도농악, 국가유산진흥원 예술단의 소고춤 등도 무대를 풍성하게 채울 예정이다.

공연 입장권은 1인당 2매까지 신청 가능하며 전석 무료다.

신청은 백운아트홀 홈페이지(포스코·문화행사·광양·굿보러가자)를 통해 오는 25일까지 사전 접수한 뒤 26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공연 관련 문의는 광양시청 문화예술과(061-797-2732)로 하면 된다.

김명덕 광양시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공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예술 명인들의 무대를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며 “많은 시민들이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감동을 직접 체험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지역 무형유산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12일부터 휴관 내달 7일 재개관 여수시립쌍봉도서관

전라남도 여수시립쌍봉도서관이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내달 6일까지 임시 휴관한다.

7일 여수시에 따르면 휴관 기간 수배전반과 창호 교체 등 시설물을 보수하고 오는 6월7일 재개관할 계획이다....

1층 어린이자료실은 통합데스크 설치와 서가 재배치 작업으로 지난 4일 운영을 종료했으며 2층 종합자료실과 3층 학습실은 오는 11일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휴관 기간 도서 대출은 불가하나 평일 반납 처리 및 상호대차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연 16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방문하는 만큼 휴관 기간 철저한 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온누리상품권 환급 이벤트 정남진장흥토요시장

전라남도 장흥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7일 장흥군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국내산 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정남진장흥토요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남진장흥토요시장 상설시장 수산물 코너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들은 국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 할인받을 수 있고,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은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 후 영수증을 지참하고 환급장소인 상설시장 내 고객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금액별 환급액은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며 환급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가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정남진장흥토요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에 군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흥=김전환 기자



지난 2일 장흥군 관산을 삼산간척지 일원에서 행정·농업인·단체가 합동으로 월동 왕우렁이를 수거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장흥군, 월동 왕우렁이 수거 활동 추진

전라남도 장흥군은 지난 2일 장흥군 관산을 삼산간척지 일원에서 행정·농업인·단체 합동으로 월동 왕우렁이 수거 활동을 추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거 활동에는 친환경 농업인, 친환경 및 우렁이 생산자 협회, 관계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해 왕우렁이 수거의 심각성을 갖고 수거에 동참할 것을 다짐했으며 용배수로에 있는 왕우렁이 수거활동을 추진했다. 특히 이날 수거 활동에는 우렁이생산자협회에서 왕우렁이 유입을 막기 위해 용수로에 차단망 설치 시연을

선보여 농업인에게 왕우렁이 수거 및 관리의 중요성을 홍보하기도 했다.

왕우렁이는 논 잡초 제거에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어 친환경 벼 농업에 필수적이지만, 월동한 왕우렁이는 왕성한 번식력으로 이앙한 어린 모를 갉아 먹는 등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왕우렁이를 의무적으로 수거해야 한다.

장흥=김전환 기자

여수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 도전

총 1조1000억 규모

전라남도 여수시가 세계적인 해양관광 도시를 목표로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에 도전한다.

7일 여수시에 따르면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은 민간투자를 연계한 해양레저관광 기능의 집적화로, 대한민국 대표 해양레저관광도시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민간투자 8980억원을 포함해 국비 1000억원, 지방비 1000억원 등 총사업비 1조1000억원 규모의 복합해양레저관광단지를 구상 중이다.

사업지구는 돌산을 평사리 무술목 해수욕장 일원 약 37만평 부지로, 천혜의 자연경관과 주변 연계 관광지를 두루 갖춘 만큼 새로운 해양레저관광 명소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는 재정사업으로는 복합해양레저타운, 해양관광 전시·체험관, 해양관광 플로팅마리나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해양레저관광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플로팅마리나는 50척 이상 요트가 정박할 수 있는 마리나 시설과 플로팅 호텔, 수상레저스포츠센터, 야외 정원 등의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또 낚시와 관계없이 즐길 수 있는 실내

해양스포츠존을 비롯해 심해탐험·해양로봇·자율운항 선박 등으로 구성된 스마트 해양기술체험관, 해양문화 보존을 위한 해양유산 디지털 전시관, 여수 연안 생태계를 재현한 수중 생태관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구상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으로는 무술목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며 대중제골프장, 호텔 및 콘도 등 숙박시설, 관광휴양문화 시설, 연도형 상가 등이 들어서게 된다.

시는 이 같은 청사진을 바탕으로 지난 달 30일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해수부에서는 올해 상반기 공모사업 대상지로 2곳을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이경기 기자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 ‘이름 짓기’ 광양시, 21일까지 명칭 공모

전라남도 광양시가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의 이름을 정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명칭 공모에 나섰다.

7일 광양시에 따르면 공존의 가치를 추구하는 포스코와의 상생 협력을 바탕으로 조성을 추진 중인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은 역삼각형 철제 구조물로, 삼각형 경사로를 따라 정상까지 일곱 번 회전하며 올라가는 독창적인 디자인을 갖췄다. 이는 ‘빛과 철의 도시’ 광양이 지닌 무한한 성장 가능성과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다.

조형물이 들어서는 구봉산은 과거 봉수대가 위치했던 역사적 장소로, 광양제철소와 이순신대교, 순천, 여수, 남해 등 남해안권이 360도로 펼쳐지는 파노라마 전망을 자랑하며 접근성 또한 뛰어나다.

공모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21일까지 광양시청 홈페이지와 공모전 전문 플랫폼 ‘씽유’, ‘씽굿’, 또는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대상지의 공간적 특성을 반영하고 조형물의 의미와 상징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면서도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직관적이고 강렬한 인상의 명칭을 선정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선정된 명칭에 대해 네이밍과 로고를 포함한 상표권 일체를 등록하고, 지속적인 노출과 활용을 통해 조형물의 정체성과 브랜드 가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양=안영준 기자

‘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 공모 고흥군, 내달 30일까지 추천

전라남도 고흥군은 소록도에서 40여년간 나눔과 헌신의 삶을 실천한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봉사 가치의 사회적 인정 강화를 위해 ‘제5회 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 후보자를 오는 6월30일까지 추천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국가나 지역 사회에 헌신·봉사한 자로 ‘간호 부문’과 ‘봉사 부문’에서 각각 1인을 선정한다. 간호 부문은 (사)대한간호협회가 별도의 일정에 따라 공모를 진행해 2배수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들과 봉사 부문 후보자를 대상으로 마리안느·마가렛봉사대상 심사위원회가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수상자는 부문 구분 없이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통령 표창 또는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받으며, 시상금은 대통령 표창 2000만원, 국무총리 표창 1500만원으로 훈격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후보자 추천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장,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 중앙이나 시도 및 시군구 단위 각급 사회단체장 또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자 20인 이상의 연서로 가능하다.

군은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 추진 위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중 수상자를 발표하고, 같은 달 28일 마리안느·마가렛 나눔 연수원에서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고흥=심정우 기자